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딸이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니까, 어언 15년 전 일이 다. 고만고만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던 친구들이 뭉쳐서 모처럼 여름 여행을 떠났다. 숙소에서 꼬마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수박을 쪼개리라! 아이들이 점병거리며 놀 수 있는 야트막한 계곡이 있는 펜션을 예약하고 우리는 한 계절의 추억을 장만할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그날 물놀이를 하지 못했다. 폭우 뒤끝이라서 아이들이 점병거리릴 예정이었던 야트막한 계곡은 지옥 같은 굉음을 내는 폭포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그 계곡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오래 서성였다. 여름 내내 이 날을 기다렸는데! 비싼 돈을 주고 이곳을 예약했는데! 바위에 앉아서 발을 담그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늘이 개어서 햇빛마저 슬쩍슬쩍 오가는데, 우리에게 설마 정말로 TV에서 보듯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돌이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위

폭우 속에서

태로운 장면이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내가 계곡물에 살짝 발을 담그자마자 슬리퍼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라졌다. 구멍조끼를 찢겨 입은 서너 명의 꼬마들을 둘러세운 것은 내가 슬리퍼 한 짝을 희생시킨 다음이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일어날 뻔했던 비극을 틀어막았으니 우리는 그날 행운의 돌봄을 받았다. 하지만 철없었던 나는 슬리퍼 한 짝을 분실한 것마저도 꽤나 아깝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어리석다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이었다.

이전까지 익숙했던 '집중 호우'나 '호우 경보'라는 표현을 넘어선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처음 듣고 어리둥절했던 그 주에 나는 네 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첫 강연 장소였던 서울 동작구로 향하면서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이해한 1인이 되었다. 폭우 속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나는 정말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날 동작구에는 극한 호우의 경보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는 시간당 76.5mm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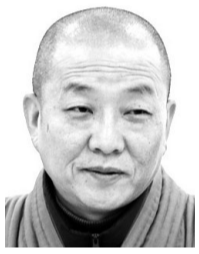
본격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간에, 나는 호우의 중심지였던 대전과 전북을 오가며 나머지 세 개의 강연을 소화했다. 가족의 여름 여행 삼아서 맛있는 것을 잔뜩 먹고 오자고 신나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떠올릴 틈도 없이, 엄청난 폭우로 눈앞이 보이지도 않았다. 한가롭게 강변 산책로에 서 있었던 나무들은 한두런 강물이 풍당 잡겼고 저지대 통로의 통행을 제한해 교통 혼란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바짝바짝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연신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날렸다.

어딜 가나 물웅덩이와 손상된 도로, 교통 통제와 앞 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폭우의 연속이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골목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노란 가로대가 서있었고 차를 돌킬 때마다 강연 장소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큰 폭으로 폭풍 늘어났다. 폭우와 정체에 시달리는 도로에서 남편과 나는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으로 싸웠다. 남편은 이런 폭우 속에 무리하게 운전해서 가느니 조금 비가 맞을 때까지 휴게소나 식당에서 멈추어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했고, 나는 정체된 장마 전선 속에서 비가 맞을 리 없으니 지금 힘들더라도 달려서 비구름을 벗어나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여러 상식과 의견들이 있었으나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지금 저 길로 들어설 것인가'의 선택, 또 선택, 또 다시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옳은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행운의 도움을 받아, 폭우가 내내 함께한 이를 동안 마지막 강연에 10분 늦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사히 일정을 마쳤다. 그 10분의 지연도 청중들의 너그러움으로 넉넉히 이해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앞창을 두드리는 극한 호우 속에서 비극을 알리는 뉴스를 들었다. 지난 사흘간 우리를 둘러세운 수많은 노란 가로대들이 떠올랐고, 내가 행운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은 많은 사람들의 목목한 보살핌이었음을 새삼 실감했다. 그 보살핌의 연결 고리가 빠진 틈에 기어어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전한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2020년 산사태의 기억

물들은 완만하고 반반한 잔디밭으로 모여서 덩치를 크게 불렀을 것이다. 그 결과 무덤 가장자리의 낮은 축대가 무너지고 그 여파로 함몰이 시작되어 산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사태의 시작을 눈으로 확인한 나는 묘한 쾌감이 휩싸였다. 정복감? 아니면 '별 짓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하는 느낌? 왜 인간이 그토록 자연을 알아내려고 발버둥쳐 왔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자연의 정체를 모를 때, 자연 앞에선 인간은 무력하고 왜소하다. 그러나 자연의 정체를 알고 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연도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별것 아니란 생각은 곧바로 두려움과 분노를 잠재운다.

뭐가 되었건 알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공포가 클수록 비밀을 밝힌 쾌감과 커지는 법이다.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클수록 인간은 자신이 자연보다 위대하다는 자만심에 휩싸인다. 그리고 복수하는 심정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다.

내친 김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서 토끼등 등산로까지의 상황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10미터 정도 나아가다 포기해야만 했다. 덩불이 너무나 무성해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무덤터로 다시 나오려 했지만, 황당하게도 덩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길은 산속이 아니었다. 바로 절 뒤였다. 제멋대로 자란 잡목과 잡초 속에서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 밀려오는 불안감에 압도당한 채, 십여 분 정도 정진없이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오는 순간, 맨살을 드러낸 산사태 계곡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금 전 만해도 나를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바로 그 곳이었다. 안전한(!) 계곡으로 빠져나오고 나서야 온몸이 따옴으로 뒤범벅되어 있음을 알았다.

산사태 계곡은 내게 아무런 해고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 혼자 분노했다가, 자만심에 넘쳤다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반가운 마음에 안도감까지 느꼈다. '도대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뭐지?' 한참을 생각했다.

희로애락 같은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럽다 함은 곧 자연(自然)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자연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인간(人間)스럽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나는 지극히 인간스러웠을 때를 이었다. 산사태를 분노에 찬 자연의 폭주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다. 산사태는 인연 따라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인간이기에 자연조차 인간스럽게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자연을 인간화하기 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순리에 가깝다.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덧붙임. 2020년 8월 8일, 54일간이나 이어진 가나긴 장마의 마지막 날, 밤새 집중 호우가 내렸다. 그날, 중심사 템플 스테이인 구역은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기고



황옥주 수필가

인고난전(人固難全)과 자살

건이 공개져 떠오르기 때문이다. 누구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으랴만 이분들 죽음은 더 가슴이 아팠다.

사람은 신의 피조물이다. 태어남도 죽음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다. 만약 누가 신처럼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부질없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잘못을 알았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세상을 향해 용서를 구해야 옳다. 자살이 탈출 창구로 보일라 치면 그때는 이미 늦다. 당사자는 죽음이면 그만이라 여길지 모르나 자살은 누군가에게 명예를 씌운 죄악이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가만있어도 찾아올 죽음이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면려(勉勵)라야 진짜 노력이다.

라오다메이아는 트로이의 사령관 헥토르의 화살에 맞아 첫 사망자가 된 프토티라오스의 아내다. 신혼 초에 남편을 전쟁에 보내 놓고 너무 보고 싶어 남상(幃像)을 만들어 품고 잤다. 궁궐로게도 그 다음날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다. 원통한 그녀는 제우스신에게 애원했다. 애걸하는 여인을 불쌍타 여신 제우스는 명령 무리에 섞여 있는 남편을 찾아가다 남상에 날여 주었다. 남상은 곧 남편으로 변했고 꿈 같은 세 시간이 지나 부인은 남편 품에 안긴 채 칼로 스스로 제 가슴을 찔러 남편 망령을 따랐다. 신화 속 얘기지만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행위는 노력으로 보아도 괜찮지 않나 싶다. 남편의 팔에 안겨 하늘로 오르는 아내 된 자의 미소가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아아 저녁이 되면/ 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술집이

가득 넘치는 도심(都心)' 우리 고장 고 박봉우 시인의 '전달래도 피면 무엇하랴'란 시다. 밤에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누구의 조사인지는 몰라도 흥미로운 통계다.

'휴전선'이란 이름이 생겨난 이래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믿음과 믿음이 없는 얼굴들이 수십 년간 맞서 노려보고 있다. 나는 살아야 하고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공존이 인정되지 않은 곳이다. 노루 사슴들도 마음대로 넘나들기 어려운 휴전선! 한치 앞이 죽음의 나락이다. 죽음은 대의를 위할 때라야 가치가 있다. 국가 민족을 위해 할 일은 너무도 많다.

자살의 망령은 이 순간도 허공을 떠돌고 있다. 존경 받은 정치가가 단돈 몇 천만 원에 죽었다고 아깝다 여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 TV에 보이지 않았으면(죄송) 좋겠다는 얼굴도 있을 것이다. 환락가 어느 곳에서는 비 내리는 밤에도 향내 짙은 여인들과 희롱을 주고받는 고관대작이 있을 것이다. 탐의 소중함밖에는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수작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와야 함은 학문 말고라도 인간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인고난전'을 알고 수신을 했더라면 허무한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을... 슬픈 히나리 군상이 바로 이웃에서 죽어가도 높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돈에 눈이 가려서일까? 누군가가 자살하면 그 의자는 내 것이라고 속으로 박수치고 웃을 자 많을 터이다. 친구도 동지도 의리도 글자로만 존재한 요지경 세상이다. 자살한 자만 서럽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약삭같이 살고 볼 일이다.

社說

읍면 경관 해치는 고층 난개발 방지할 건가

인구 감소로 쇠락하고 있는 전남 지역 중소 도시나 읍면 시가지에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도시 계획 심의 과정에서 녹지나 저층 주거 지역을 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상반기 다섯 차례 회의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섯 회의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원안대로, 나머지 세 건은 조건부로 각각 승인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원안 승인된 '순천 왕지 2지구 도시 개발'은 43만 9079㎡의 부지에 29층 아파트 단지를, '해남 공공주택 개발 행위 허가'는 1만 4434㎡ 부지에 26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두 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250%, 212.7%가 보장돼 인근 지역과는 전혀 다른 고밀·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조건부 승인된 광양 광양읍·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개발 행위 허가와 여수 죽림

1지구 도시 개발 사업 계획도 모두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다. 특히 순천 조례동의 경우 이례적으로 건폐율 76.3%, 용적률 736.8%가 적용돼 최고 높이가 39층에 달한다.

이러한 고층 아파트 개발은 '2035 전라남도 경관 계획'과도 배치된다. 전남도는 이 계획에서 "기성 시가지 이외 지역의 고층·고밀 아파트 주거 사업을 지양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개발은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중소 도시나 읍면은 고유의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대단위의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을 승인하는 것은 확립화·무개성화·비인간화를 부추길 뿐이다. 난개발로 인해 정주 여건마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생활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마땅하다. 전남도는 스스로 마련한 경관 계획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폐업 위기 시립 요양병원 살릴 대책 없나

광주 시립 요양병원이 진료 공백으로 결국 폐업 위기를 맞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2 요양병원은 노조 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자 환자들에게 퇴원을 권고했고, 위탁 운영 계약 만료일인 이달 말 이후에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립 제2 요양병원장은 옛것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지원 또는 퇴원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원 측은 "파업 장기화로 정상적인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해 27일까지 전원 및 퇴원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1 요양병원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제2 요양병원 노조는 지난 7일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측이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간호 인력만으로는 더 이상 환자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환자 40여 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병원에는 130여

명의 환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1 요양병원 노조도 집단 단식에 들어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선 데 묘친 격으로 광주시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제2 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 의료 기관이 파행을 겪고 있는 데도 광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병원과 노조가 수십 일째 갈등과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시의 중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정작 피해는 환자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시립 요양병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 의료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경영 악화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개선 방안을 찾는 건 지자체의 몫이다. 시는 시립 요양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올 장마 기간 전국적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져 침수·산사태 등으로 역대급 인명 피해를 냈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100년 만의 폭우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려 서울 강남이 잠긴 것을 비롯해 전남 지역에서도 구례읍이 물에 잠기고 곡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대했다. 장마와 홍수는 계속되고, 정부는 그때마다 해결책과 방지책을 내놓았

지만 참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치수(治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댐과 수로 시설 등 방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고대에는 치수가 곧 정치이고, 국왕의 덕목이었다. 물난리를 막아 백성의 생명과 곡식을 보호한 지도자만이 왕의 자격을 얻었던 것이다.

중국 고대사에서 최고의 태평성대로 꼽히는 시기를 요순(堯舜)시대라고 한다. 어진 임금이 대를 이어 선정을 편 이상 국가로 알려졌지만, 이 시절에도 홍수는 백성을 위협하는 우환이었다. 두 임금은 황

하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황하 치수에 온 힘을 쏟았다. 요임금은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치수전문가로 '문'이라는 인물을 기용했다. '문'은 10년 동안 치수에 힘썼으나 실패했다. 요임금에 이어 효심과 덕성을 갖춘 순이 임금에 올라, 곤을 내쫓는 대신 곤의 아들 우(禹)에게 치수(治水)를 맡겼다. 치수에 성공한 우는 순임금에 이어 왕에 올라 훗날 '하' 왕조를 개국한다.

요순시대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자료가 없어서 신화시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서의 내용만으로도 중국 이 치수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왕위가 왕의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황하의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주어 진다는 것이다. 치수 능력이 곧 왕의 자격인 셈이다. 이렇게 왕위가 이상적으로 이양된 것을 '선양'(禪讓)이라 부른다.

애고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대처 미흡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명백한 치수 능력 부족 탓이다. 이번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지 부 220-065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